# ‘젠슨 황’ 등 글로벌 기업인 1700명 ‘APEC CEO 서밋’ 집결

〈엔비디아 CEO〉

**오는 28일부터 ‘APEC CEO 서밋’**
**지역경제통합·AI 등 과제 논의**
**AWS, APAC, 메타, MS 등도 참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기업인들이 오는 28일 경주에 총집결한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경제포럼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을 28일부터 3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한다.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의 회장이 의장을 맡았다. 최 회장은 지난해 11월 페루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폐막식에서 의장 인수봉을 전달받은 뒤, 올해 서밋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를 이끌어왔다.

최 회장은 28일 저녁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29일 개회사를 비롯해 31일 폐회사와 의장 인수인계식까지 행사 전반을 총괄 지휘한다.

이번 서밋에는 APEC 21개 회원국 가운데 정상급 인사 16명과 글로벌 기업 CEO 1700여명이 참석한다. 주제는 ‘Bridge, Business, Beyond(3B)’로 ▲지역경제통합 ▲AI·디지털 전환 ▲지속가능성 ▲금융·투자 ▲바이오·헬스 등 시대적 과제가 논의된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글로벌 테크 리더들도 대거 경주를 찾는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비롯해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사이먼 칸 구글 APAC 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부사장, 안토니 쿡·울리히 호만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등이 연사로 나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의 미래를 논의한다.

국내에서는 최수연 네이버 CEO, 이홍락 LG AI연구원장 등 국내 주요 테크 리더들이 함께 한다.

금융·제조·에너지 분야 리더들도 한자리에 모인다.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존슨 CEO, 다니엘 핀토 JP모건 부회장, 오모토 마사유키 마루베니 CEO, 도쿠나가 도시아키 히타치 CEO, 리판룽 시노켐 회장, 쩡위췬 CATL 회장, 데이비드 힐 딜로이트 아시아태평양 CEO 등이 참석한다.

또한 페트로나스(말레이시아), 테라파워(미국) 등 주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을 비롯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마티아스 코만 OECD 사무총장, 월드뱅크·AIIB·ADB 등 국제기구 인사들도 참여해 AI를 매개로 한 산업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CEO 서밋은 기존 2박3일에서 3박4일 일정으로 확대된다. 총 20개 세션과 특별연설, 정상연설 등 85명의 연사가 참여해 19시간 이상 집중 논의를 진행한다.

CEO 서밋의 차별화 포인트는 정상과 글로벌 CEO 간의 직접 소통이다. 참가 기업들은 APEC 정상·장관과의 1대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투자·협력 기회를 구체적으로 발굴한다.

공식행사 외에도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세계에 알리는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AI·방산·조선·디지털자산·에너지·유통 등 핵심 산업을 다루는 퓨처테크 포럼을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선보인다.

K-테크 이노베이션 쇼케이스에서는 국내 혁신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소개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모색한다. 이 밖에도 와인·전통주 페어, K-뷰티·웰니스 체험관, 미술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돼 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APEC의 경제효과는 약 7조 4000억원, 고용 창출은 2만2000명에 이를 것”이라며 “2025 APEC CEO 서밋은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실질적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정부, 지자체, 국내 대표 기업들과 오랜 기간 준비해온 만큼, 이번 경주 APEC CEO 서밋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AI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metroseoul.co.kr

## 경주시, 지방소멸대응기금 4개 추진

**신농업 혁신타운 기능 강화하고**
**창농·귀촌 활성화 통한 인구유입**
**첨단 농산업 기반 조성 기여 기대**

경주시가 추진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들이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착공과 예산 집행이 이어지며 사업이 정상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현재 경주시는 총 4건의 기초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2023년 귀농·귀촌 체류시설 웰컴팜하우스 조성 ▲2024년 신실크로드 520센터 조성 ▲2025년 스마트 골든밸리 조성 ▲2025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등으로, 이들 사업은 주요 행정절차를 대부분 완료하고 공정률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단계에 진입했다.

‘귀농·귀촌 체류시설 웰컴팜하우스 조성사업’은 내남면 상신리 1298번지 일원(신농업혁신타운 내)에 귀농·귀촌인을 위한 체류형 주거·교육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신실크로드 520센터 조성사업’은 성건동 167-11번지 일원에 외국인과 지역민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2억원(기금 16억, 시비 16억)이 투입된다.

‘스마트 골든밸리 조성사업’은 내남면 상신리 신농업혁신타운 내(1288·1289번지)에 스마트농업 체험장과 교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주시는 이들 사업을 통해 신농업 혁신타운의 기능을 강화하고, 창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인구 유입 및 첨단 농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이번 축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복합형 행사로, 풍기인삼의 명성과 지역 농특산물의 다양성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 영주시, 지역 특산물·문화 행사 막 올라

**‘풍기인삼·농특산물대축제’ 열려**

영주시가 깊어가는 가을, 지역의 대표 특산물과 문화를 한데 아우른 대규모 축제를 열었다. ‘풍기인삼’의 역사와 정체성, 영주 농산물의 품격이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기는 지역 축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25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와 ‘2025영주장날 농특산물대축제’가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영주시 풍기읍 일원과 부석사 잔디광장 등지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축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복합형 행사로, 풍기인삼의 명성과 지역 농특산물의 다양성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두 축제를 연계해 같은 공간에서 진행함으로써 행사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 ‘디젤 화물차 생산 중단’에 농민 불편↑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LPG·전기차 모델만 판매**

디젤 1t 화물차 생산이 중단된 지 2년이 지나면서 전남 농민들의 불편이 점차 커지고 있다. LPG와 전기 화물차는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서 사용하기 어렵고 출력이 낮아 농업 현장에서는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에 따르면 현재 생산 중인 1t 화물차 봉고3는 LPG와 전기차 모델만 판매되고 있다. 현대차 포터 역시 2023년 11월 디젤 모델 생산을 중단했다.

농산물 수확을 위해 밭에 진입하거나 언덕길을 오가는 일이 많아 대부분 사륜구동 차량을 쓴다. LPG 모델에도 사륜구동이 있지만 기어 변속이 예민하고 밭길 주행 시 시동이 꺼지는 사례가 잦다.

전기차는 주행거리 제약이 크다. 봉고3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17㎞지만 겨울철 히터를 켜거나 무거운 짐을 실으면 실제 주행거리는 훨씬 줄어든다. LPG나 전기차의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해도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민들에게는 큰 이점이 되지 않는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 전남도, 올해 공공비축미 19만t 매입

**전년比 26.4% 늘어… 역대최고 물량**

전남도는 2025년산 공공비축미 19만t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올해 매입계획량은 일반벼 10만1000t, 친환경 벼 2만9000t, 산물벼 3만1000t, 가루쌀 2만9000t이다.

이는 전국 매입량 62만5000t의 30.5%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년대비 26.4%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 물량이다.

연도별 매입량을 살펴보면 2021년 12만3000t, 2022년 15만3000t, 2023년 14만1000t, 2024년 15만1000t이다.

매입 기간은 산물벼의 경우 11월30일까지이다. 농가편의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건조저장시설(DSC) 등 산지유통시설을 통해 매입한다. 포대벼는 오는 12월31일까지다. 읍면별 지정된 장소에서 직접 매입한다.

정부양곡 품질 고급화를 위해 매입대상은 시군별 2개 이내 품종으로 지정한다. 지정 품종 이외 품종으로 공공비축 매입에 참여하는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전남=양수녕 기자

## 지역 이모저모

### 대구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대구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50%까지 인하한다.

대구시는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요율을 기존 5%에서 소상공인은 2.5%, 중소기업은 3%로 각각 조정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임대료 연체료도 50% 감경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힘쓰기로 했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 경북도

**봉화~울진 잇는 ‘동서트레일’**

경북도는 대한민국 최초의 장거리 백패킹 트레일인 ‘동서트레일(East-West Trail of Korea)’의 경북 구간이 뚫렸다.

동서트레일은 경북 울진에서 충남 태안까지 한반도의 동과 서를 가로지르는 총연장 849㎞(55개 구간)의 장거리 숲길로, 백패킹 문화를 기반으로 조성된 국내 최초의 트레일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총 17개 구간, 244㎞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경북 구간은 봉화군과 울진군을 지나는 47~55구간(9개 구간, 138㎞)이 포함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 광주시

**‘미래車 사업구조’ 전환 지원**

광주시가 자동차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차 사업구조’ 전환을 지원한다.

광역시는 미래차 사업구조 전환과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는 ‘2025년 자동차부품업체 역량강화사업’ 대상업체 35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자동차 부품산업의 다양한 세부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로 오는 12월까지 산업 변화에 따른 사업구조 전환과 맞춤형 성장전략 수립 등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 지원사업은 미래차 사업 재편, 공급망 이에스지(ESG) 대응, 연구개발(R&D) 기획 등 9개 분야로 맞춤 설계됐다.

/광주=양수녕 기자

### 부산시

**오는 23일부터 ‘부산자갈치축제’**

부산 중구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유라리광장 일원에서 제32회 부산자갈치축제를 연다.

축제는 23일 오후 7시 남항에서 열리는 해상 불꽃쇼로 막이 오른다. 이어 미스트롯 우승자 정서주, 미스터트롯 가수 나태주 등 초청 가수 공연이 이어진다.

축제 기간에는 ▲자갈치 용신제 ▲장어 이어달리기 ▲황금물고기를 찾아라 ▲수산물 무료 시식회 ▲세계 최대 회비빔밥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부산=이도식 기자